



서문밖 시장 ॥ 1912년경 ॥ 『금란부』 (1912) ॥ A12-0021

다가산에서 바라본 서문 밖 시장으로 오른쪽 앞에 보이는 다리가 완산교이고, 그 뒤의 다리가 서천교이다.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동학농민군은 서문 밖 시장 장날을 택해 장꾼으로 변장하여 전주에 진입하였다. 서문 밖 시장은 7일장이었으며, 1923년 남문시장에 통합되었다. 『금란부(金蘭簿)』(가로 22cm, 세로 15.2cm, 280쪽)는 전주에 본사를 두고 일본어로 발행되던 전북일일신문사(全北日日新聞社)에서 1912년에 발행한 책이다